

현안과 과제

-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업 경영 파급 효과
 - 국제유가 상승이 산업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Executive Summary

□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업 경영 파급 효과 - 국제유가 상승이 산업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개요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경영 목표 재검토 및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은 작년 연말에 수립한 2026년 사업계획의 핵심 전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연간 사업계획 및 비용·수익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번 중동 분쟁은 단기적 지역 분쟁을 넘어 미국의 패권 약화 및 다극화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충격으로 중장기적 대응전략 수립도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산업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국제유가 동향

중동전쟁 발생으로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급등했으며, 2026년 전망치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높은 가격 수준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2025년 평균 국제유가는 65~70달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26년 2월 전쟁 발발과 함께 급등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100달러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26년 연평균 국제유가 전망치를 최근 90.3달러(26.5월 전망)로 상향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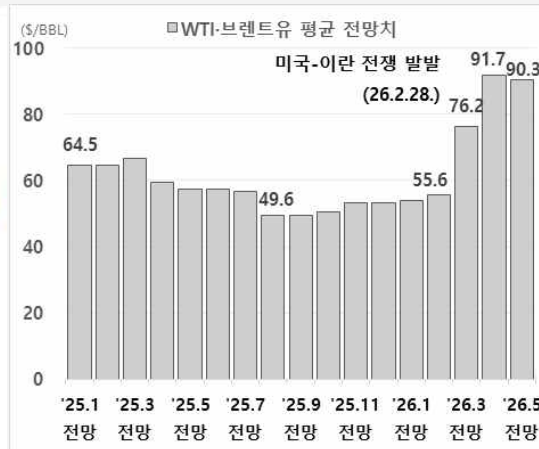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는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원유 생산 인프라에 대한 피해 등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재고도 감소하면서 국제유가 안정화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국제유가 동향 >



자료: 한국석유공사 petronet

< 전망시점별 2026년 유가 전망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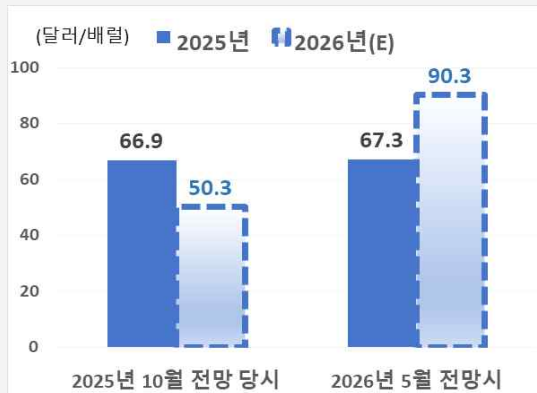
자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 국제유가 상승이 산업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유가 상승은 투입요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산업의 영업이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OLS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국제유가 상승이 산업별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제유가가 1% 상승하면 전산업 영업이익률은 0.02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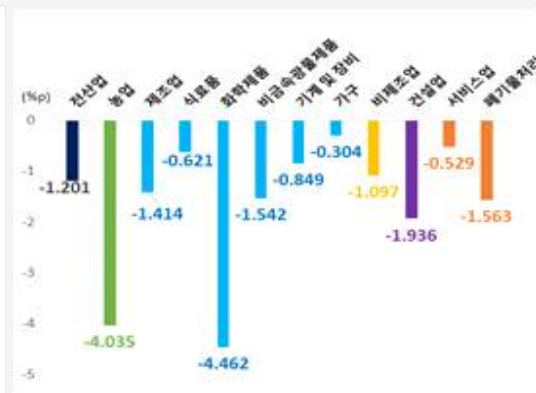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2026년 국제유가 전망치는 배럴당 50.3달러**(25.10월 전망)에서 **90.3달러**(26.5월 전망)로 **79.5%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전산업 영업이익률은 **1.2%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로는 **화학제품 제조업(-4.5%p)**, **농업(-4.0%p)**, **건설업(-1.9%p)**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 국제유가 전망치 변화 >



자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 국제유가 전망치 상승에 따른 산업별 영업이익률 변동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변동성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들은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비용·리스크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은 2025년 말에 수립한 사업계획의 국제유가 기준치를 현실화하고, 시나리오별 손익 영향을 재산정하여 2026년 경영 목표를 재조정해야 한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에너지·원자재 조달 전략을 공급 안정성 및 리스크 분산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미·중 전략 경쟁, 러-우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맞물리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이를 일시적 혼란이 아닌 구조적 전환으로 인식하고 공급망·시장·투자 전략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1. 개요

-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영 목표 재검토 및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
 - 2026년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3개월째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안보 리크스가 전방위적으로 확대
 - (3월) 미국·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에 대응한 이란의 주변국 미군기지 공격, 정유시설 파괴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국제유가 급등
 - (4월) 4월 7일 불완전한 휴전이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인 협상이 좌초되면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에너지 공급망 위기 심화
 - (5월)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지속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피격과 군사 충돌 위험이 반복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지속
 - 국내 기업들이 작년 연말에 수립한 2026년 사업계획의 핵심 전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연간 비용·수익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2026년 연간 국제유가 전망치는 2025년 10월 당시 50달러 수준이었으나, 2026년 4월에 발표된 연간 전망치는 91달러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
 - 이는 사업계획에 내재된 비용 구조, 이익 목표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는 수준이며, 특히 유가 연동 원가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재검토가 더욱 필요
 - 중동전쟁은 단기적 지역 분쟁을 넘어 미국의 패권 약화 및 다극화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 발생한 구조적 충격으로 중장기적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됨
 - 1970년대 이후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뒷받침해온 페트로달러 체제에 균열이 나타나며 일부 산유국 중심으로 비달러표시 원유 결제가 확대
 -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상시 비용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 미·중 전략 경쟁, 러-우 전쟁에 이어 중동전쟁이 가세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서방 진영과 비서방 진영으로 분절화되는 흐름이 가속화
 - 이에 본고에서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산업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2. 국제유가 동향

○ 중동전쟁 발생으로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급등했으며, 2026년 전망치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높은 가격 수준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양상

- (원유 가격 동향) 국제유가는 2025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2026년 중동전쟁이 발발한 이후 급등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

· 2025년에는 60달러대 중후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2026년 2월까지도 유사한 흐름이 지속

* 2025년 연평균 유가(\$/BBL) : 두바이유 69.4, 브렌트유 68.2, WTI 64.7

· 2026년 2월말 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급등하며 WTI 기준 113.0달러까지 상승하였고, 최근 미국·이란 간 휴전 협상 기대 등으로 일부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100달러에 근접한 높은 수준을 유지

* 2026년 평균(1/1~5/26) 유가(\$/BBL) : 두바이유 94.9, 브렌트유 88.8, WTI 83.1

- (원유 가격 전망) EIA의 2026년 국제유가 전망은 2025년 전망 당시 50~60달러대에서 등락했지만, 중동전쟁 발발 이후 큰 폭으로 상향 조정

· 2025년 1월 전망 당시 2026년 WTI 및 브렌트유 전망치 평균은 배럴당 64.5달러 수준이었으며, 이후 동년 8월 전망에서는 49.6달러까지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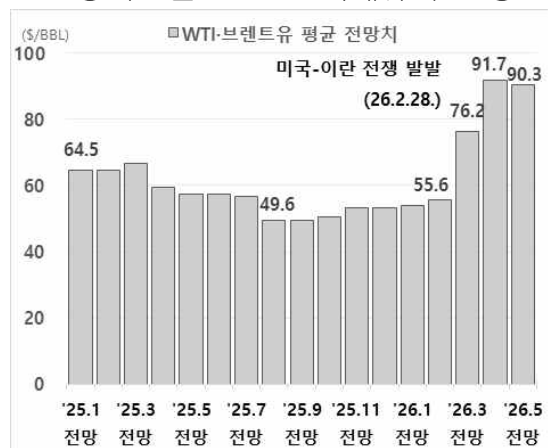
· 2026년 초 전망치도 배럴당 55.6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중동전쟁 발발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반영되며, 4월 전망에서 91.7달러, 5월에는 90.3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

< 최근 국제유가 동향 >



자료: 한국석유공사 petronet

< 전망시점별 2026년 국제유가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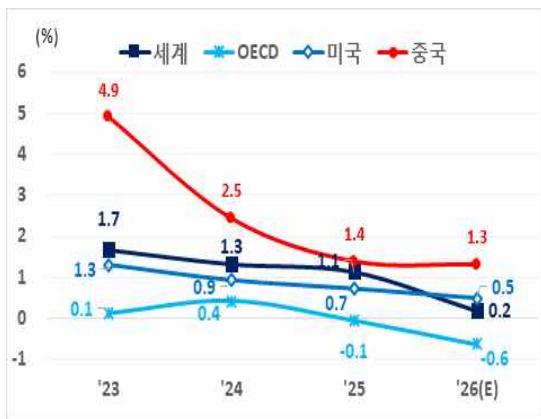


자료: 미국에너지정보청(EIA)

○ 원유 수요는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원유 생산 인프라에 대한 피해 등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재고도 감소하면서 유가 안정화 지연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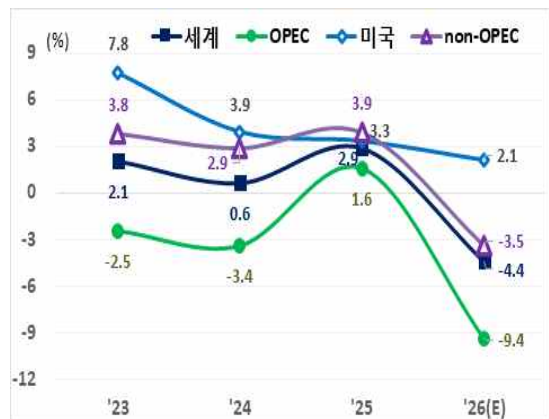
- (원유 수요) 세계 경제 성장세 저하 기조에 따라 2023년 이후 원유 수요 증가율은 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유 수요 감소 전망
 - IMF에 따르면 2025~2026년 세계 경제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장기 성장률 평균치(3.7%, 2000~2019)를 하회하는 성장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
 - ※ 세계 경제성장률(2026년 4월 전망) : ('23) 3.3%→ ('24) 3.4%→ ('25) 3.4%→ ('26) 3.1%
 -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영향으로 전세계 및 OECD의 원유 수요 증가율도 2023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에는 각각 0.2% 및 -0.6%까지 하락 전망
 - 세계 원유 수요의 16%를 차지하는¹⁾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율도 2023년 5% 수준에서 2026년에는 1.3%까지 위축될 것으로 전망
- (원유 공급) 원유 공급 증가세도 둔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2026년에는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전세계 원유 공급은 전년까지의 위축되는 흐름에서 벗어나 확대되는 모습이었지만, 2026에는 전년대비 4.4%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중동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OPEC의 2026년 원유 공급이 전년대비 9.4% 감소하며 전체적인 원유 공급 감소를 주도하는 흐름

<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율 및 전망 >



자료: 미국에너지정보청(EIA), 「STEO(2026.5)」.

< 글로벌 원유 공급 증가율 및 전망 >



자료: 미국에너지정보청(EIA), 「STEO(2026.5)」.

1) 자료 : 미국에너지정보청(EIA), 「STEO(20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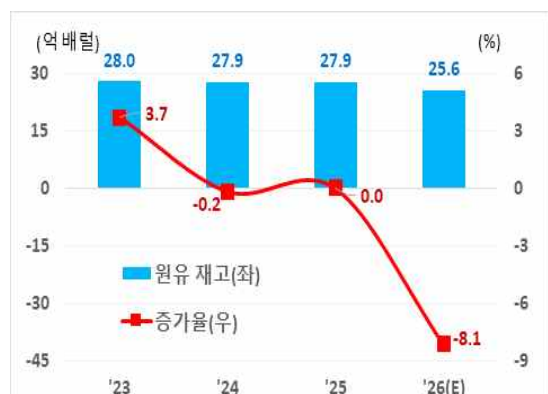
- 중동전쟁으로 원유 생산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피해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카타르 라스라판 LNG 산업단지(3월 17일), 사우스파르스 가스전(3월 19일)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피해로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 차질 발생
 - 2025년 10월 전망 당시 올해의 원유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초과공급이 일일 2.1백만 배럴로 전망되었음
 - 중동전쟁 발발 이후인 2026년 5월 전망에서는 올해 원유의 공급이 크게 감소하면서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원유 재고도 크게 감소하면서 국제유가 하락 안정화는 지연될 것으로 전망
 - 최근 3년간 28억 배럴 수준의 미국 원유 재고는 중동전쟁 발발로 해상물류 차질이 발생하면서 2026년에는 25.6억 배럴로 감소(전년대비 -8.1%)할 것으로 전망됨²⁾
 -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면서 원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여 저장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중동 산유국의 생산량 감축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함
 - 호르무즈 항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산유국 감산 지속 및 원유 공급 차질 심화로 글로벌 원유 재고 감소와 함께 원유 시장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전망시점별 2026년
글로벌 원유 수급 전망 변화
(백만 배럴/일)

전망시점	공급 (A)	수요 (B)	초과공급 (A-B)
2025년 10월	107.2	105.1	2.1
2025년 12월	107.4	105.2	2.2
2026년 2월	107.8	104.8	3.0
2026년 5월	101.6	104.2	-2.6

자료: 미국에너지정보청(EIA).

< 미국의 원유 재고 현황 및 전망 >



자료: 미국에너지정보청(EIA), 「STEO(2026.5)」.

2)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 중 하나인 동시에 WTI 가격 형성의 중심이 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력이 큰 만큼 미국의 재고이지만 원유 시장에서는 글로벌 수급지표처럼 활용됨

3. 국제유가 상승이 산업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국제유가 1% 상승 시 전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0.021%p 하락

- (분석 방법) 국제유가 상승이 산업별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LS회귀분석 모델을 활용

- 종속변수로는 투입요소의 가격까지 반영하여 산업별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업이익률을 사용함
 - ※ 영업이익률 = (총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총매출액
- 설명변수로는 국제유가, GDP, KOSPI, 원/달러 환율 및 금리 등을 고려
- 분석모델은 2009~2024년간 연간 데이터를 사용하는 OLS회귀분석법을 사용

- (분석 결과) 국제유가 상승은 투입요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산업의 영업 이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

- 국제유가 상승은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및 운송비 등을 증가시키는 경로를 통해 기업의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부담을 확대시켜 영업이익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국제유가가 1% 상승하면 당해 연도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및 서비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0.021%p, 0.024%p, 0.019%p 및 0.009%p 하락함³⁾
- 특히, 유가 연동 원재료 비중이 큰 농업(-0.069%p) 및 화학제품 제조업(-0.076%p)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큼

< 국제유가 1% 상승이 주요 산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3) 회귀식이 레벨-로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별첨> 참고) β_1 은 국제유가 100% 변화에 따르는 y 변화량의 의미임. 따라서, 유가 1% 상승에 따르는 파급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beta_1/100$ 값을 구해야 함

○ 2026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90.3달러로 기존 전망치 대비 79.5% 상승할 경우, 전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1.201%p 하락할 것으로 예상

- (국제유가 전망치 상승)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2026년 국제유가 전망치는 배럴당 50.3달러(25.10월 전망)에서 90.3달러(26.5월 전망)로 79.5% 상향 조정

-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2025년 10월 전망한 국제유가의 2026년 연평균 전망치는 배럴당 50.3달러(WTI 48.5달러, Brent 52.2달러)
- 중동전쟁 발발 이후인 2026년 5월, 동 기관이 전망한 2026년 국제유가 연평균 전망치는 배럴당 90.3달러(WTI 85.7달러, Brent 94.9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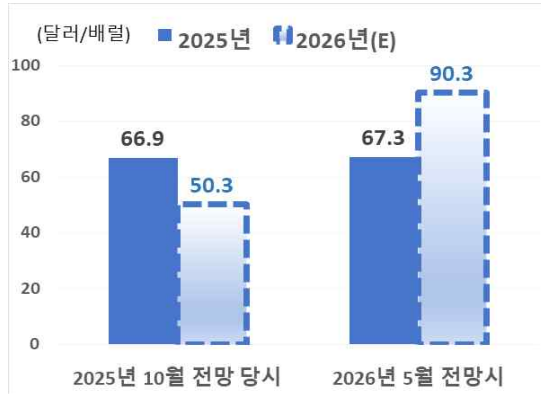
- (영업이익률 하락) 국제유가의 예상치 못한 급등으로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기존 목표치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

- 2026년 연평균 국제유가가 90.3달러로 상승할 경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전산업 1.201%p, 제조업 1.414%p, 비제조업 1.097%p, 건설업 1.936%p, 서비스업 0.529%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⁴⁾
- 특히, 원재료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농업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각각 4.035%p 및 4.462%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기계 운행 및 시설재배에 사용되는 면세유 및 전력 비용의 상승과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질소비료의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부문의 생산비 부담도 상당 수준 확대됨
- 최근 국내 주요 정유 4사의 2026년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약 5조원 수준에 달한 것⁵⁾은 과거 확보한 저가 원유 재고에 대한 평가이익 발생과 함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마진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는 대형 정유사를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중소형 정유사 및 석유화학 업종 전반까지 고려할 경우,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 부담 확대 영향으로 산업 전반의 영업이익률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함

4) 회귀계수의 '1% 변동 효과' 는 로그 근사에 기반한 해석임. 따라서 국제유가의 근사치 변화가 아닌 본 분석과 같이 변동폭이 클 경우에는 단순히 1% 변동 효과에 유가 변화분(%)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로그 변화폭을 직접 반영하여 영업이익률 변동 효과를 추정해야 함. 즉, 영업이익률 변화(%p) = $\beta_1 \times \ln(90.3/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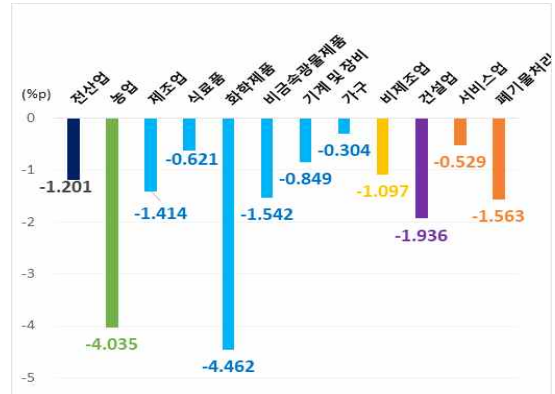
5) 연합뉴스TV, 2026년 5월 3일자 보도자료, '정유 4사, 1분기 5조 영업이익 전망... "착시효과" ' .

< 2026년 국제유가 전망치 변화 >



자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 국제유가 전망치 상승에 따른 산업별 영업이익률 변동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4. 시사점

-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변동성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들은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비용·리스크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
- 첫째, 기업은 2025년 말에 수립한 사업계획의 국제유가 기준치를 현실화하고, 시나리오별 손익 영향을 재산정하여 2026년 경영 목표를 재조정해야 한다.
 - 배럴당 9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연간 지속될 경우를 기준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영업이익률 변동 전망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유가 연동 원가 비중이 큰 화학·건설·농업 등 고위험 업종은 매출 목표 달성보다 손익분기 유가(BEP Oil Price) 이상의 수익성 확보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채산성이 낮은 수주·생산은 과감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
 -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제품·고객군을 선별하고, 가격 전가가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물량 축소 또는 계약 조건 재협상 추진
- 둘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에너지·원자재 조달 전략을 공급 안정성 및 리스크 분산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 중동 단일 루트에 대한 원유·LNG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미주·호주·아프리카 등 대체 공급처와의 장기 계약 비중을 확대하여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조달 완충력을 구축해야 함
 -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장기 고정가 공급 계약(PPA 등) 체결, 연료 전환(LNG·전기·수소) 투자, 생산 공정 에너지 효율화를 병행 추진하여 유가 변동에 대한 원가 구조의 민감도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비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
 - 단기적으로는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전략적 재고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해상 운임 급등과 전쟁위험보험료 인상을 감안한 물류 비용 버퍼를 원가 계획에 반영해야 함
- 셋째, 미·중 전략 경쟁, 러-우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맞물리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이를 일시적 혼란이 아닌 구조적 전환으로 인식하고 공급망·시장·투자 전략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 핵심 원자재·부품의 조달 경로와 생산 거점을 지정학 리스크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특정 국가·루트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 다변화
 - 고유가 구조 장기화에 대비하여 에너지 효율화·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앞당기고 고유가 수혜 사업으로의 다각화 기회도 적극 검토
 -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유가·환율·공급망 시나리오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전략 기획 및 예산 편성 프로세스와 연동하는 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 **HRI**

장우석 시장분석팀장 (2072-6237, jangws@hri.co.kr)

홍준표 수석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안아름 연구위원 (2072-6266, arahn@hri.co.kr)

【 별 첨 】 분석 모델 및 분석 결과

- 분석 모델 : 2009~2024년간 연간 데이터를 사용하는 OLS회귀모델을 사용하였으며 회귀식 및 변수는 아래와 같음

- 변수 간 관계 분석을 위해 다양한 시계열 분석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일부 변수의 비정상성과 자료 제약 등을 고려할 때 모형의 안정적 추정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과 자료 특성을 고려하여 변수 간 평균적 영향 관계를 보다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OLS 회귀모형을 활용하였음

- [OLS 회귀식]

$$y_t = \alpha + \beta_1 \ln(poil_t) + \beta_2 gdp_t + \beta_3 \ln(kospi_t) + \beta_4 r_t + \beta_5 \ln(won/dollar_t) + \beta_6 D_t + \epsilon_t$$

- y_t 는 t 연도의 산업별 영업이익률
- $poil_t$ 는 t 연도의 국제유가(WTI, Dubai, Brent 평균)
- gdp_t 는 t 연도의 한국 경제성장률(전년대비)
- $kospi_t$ 는 t 연도의 KOSPI
- r_t 는 t 연도의 회사채 금리(3년, bbb-)
- $won/dollar_t$ 는 t 연도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연평균)
- D_t 는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한 더미변수
(2020년 및 2021년이면 1, 그 이외 연도는 0)

- 분석 결과 : 국제유가 상승이 각 산업별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β_1), 통계적 유의성 및 회귀모형 진단 결과 등은 아래와 같음

- 분석대상인 38개 산업의 회귀모형 중 절반 이상에서 결정계수(R^2)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일정 수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38개 산업 중 국제유가가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계수의 t-statistics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산업은 총 16개 산업인 것으로 나타남

- 다중공선성, 이분산성 및 자기상관 등에 대한 회귀모형 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해당 문제점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국제유가 상승의 주요 산업별 영업이익률 파급영향 회귀분석 결과 >

	β_1	회귀모형 진단				
		R ²	다중공선성 (mean VIF)	이분산성 (Prob > chi ²)	자기상관 (Prob > chi ²)	모형설정 (Prob > F)
전산업	-2.052**	0.6644	3.03	0.9735	0.4135	0.2549
농업	-6.896*	0.4123		0.9023	0.8874	0.6284
어업	-1.307	0.4644		0.6310	0.8673	0.1334
광업	7.495**	0.8760		0.9004	0.7877	0.5770
제조업	-2.417	0.4716		0.8300	0.4547	0.0731
식료품	-1.062***	0.8899		0.0146	0.3372	0.8114
음료	0.818	0.5309		0.3021	0.0866	0.4586
섬유제품	-1.110	0.7142		0.2415	0.0023	0.1615
의복 및 모피제품	1.665*	0.8073		0.1000	0.8408	0.6264
가죽, 가방 및 신발	2.135***	0.8970		0.4007	0.0199	0.0051
목재 및 나무제품	-0.468	0.4515		0.3889	0.8904	0.020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0.704	0.5563		0.1726	0.7362	0.863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269	0.9097		0.0516	0.8174	0.7293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5.030	0.5990		0.6576	0.5880	0.065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7.626***	0.7867		0.9752	0.4919	0.097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1.317	0.8187		0.9807	0.0543	0.05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0.126	0.7017		0.7479	0.7969	0.6914
비금속 광물제품	-2.635**	0.9262		0.7630	0.6882	0.2621
1차금속	-1.437	0.7697		0.0911	0.2093	0.0139
금속가공제품	-0.041	0.4958		0.4950	0.0257	0.9104
전자제품, 컴퓨터 및 통신장비	-5.502	0.3530		0.8190	0.2583	0.115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108	0.2434		0.4150	0.1943	0.6010
전기장비	-0.192	0.7637		0.7585	0.6515	0.6488
기타 기계 및 장비	-1.451*	0.6665		0.5778	0.8368	0.57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2.711	0.5890		0.7846	0.4112	0.5735
기타 운송장비	-1.680	0.5795		0.9108	0.1505	0.5999
가구	-2.519***	0.7090		0.1214	0.5059	0.7361
기타 제품 제조업	0.494	0.3423		0.6581	0.4252	0.0850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0.557	0.5314		0.8848	0.4800	0.8346
비제조업	-1.874***	0.9173		0.7327	0.0152	0.5421
전기, 가스 공급업	-7.949	0.5018	0.0114	0.6774	0.0119	
건설업	-3.309**	0.6126	0.8466	0.7113	0.7583	
서비스업	-0.904**	0.8163	0.2584	0.5751	0.8047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2.672*	0.6452	0.9192	0.3113	0.9426	
도매 및 소매업	0.080	0.7201	0.9676	0.5210	0.5512	
운수 및 창고업	1.176	0.8333	0.0151	0.9457	0.0556	
숙박 및 음식점업	3.427**	0.9397	0.8817	0.0506	0.0083	
정보통신업	-2.397**	0.7630	0.7909	0.9803	0.7327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주1) ***, ** 및 *는 각 회귀계수값이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주2) (다중공선성)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주3) (이분산성)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점검하기 위해 Breusch-Pagan/Cook-Weisberg 기반의 hettest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p-value가 0.05 미만일 경우 이분산성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주4) (자기상관) 오차항의 자기상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Breusch-Godfrey 검정(bgodfrey test)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p-value가 0.05 미만일 경우 자기상관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주5) (모형설정) 모형설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Ramsey RESET 기반의 ovtest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Prob > F 값이 0.05 미만일 경우 모형설정 오류 또는 누락변수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